

담화 기호학의 긴장구조*

—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홍정표**

【 차 례 】

- I. 머리말
- II. 긴장구조
- III. 긴장도식
- IV. 강도와 범위
- V. 긴장성과 담화 코드
- VI. 맺음말

국문초록

프랑스 기호학자 자크 폰타닐이 정념 기호학에 뒤이어 정립한 담화 기호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분석 도구인 긴장구조(structure tensive) 이론에 초점을 맞춰 본고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담화 기호학은 기존 기호학의 구조에 대한 관심을 작용과 조작으로 이동하고, 이산적 대립에 대한 관심을 긴장적이고 점차적인 차이로 이동한다. 그래서 발화되고 있는 담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고자 하며 발화 작용과 조작에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지각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감각의 현상이 처음으로 분절된다. 또한 유의미적 집합을 조직하는 가치 체계를 찾고자 하는데, 이 가치 체계는 긴장구조의 형태를 띤다. 긴장구조는 발화 현동태(instance énonciative, 발화실현행위)를 전제로 하며, 점차적이고 방향 지워진 발랑스(변조 현상)를 구성하면서 차이적인 가치 체계의 기반이 된다. 긴장구조를 도식화한 긴장도식은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5S1A5B5A0704)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개념적 구조인 동시에 시각적 표상이며, 지각 활동에서 두 발랑스인 강도(세로좌표)와 범위(가로좌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본고는 긴장구조 이론을 제2회 동인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선우휘의 「불꽃」에 적용하여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열쇠어 : 강도, 긴장, 긴장구조, 긴장도식, 방향성, 범위, 상승도식, 순행 상관관계, 역행 상관관계, 하강도식

I. 머리말

지난 세기 혁명을 일으켰던 구조주의의 퇴조와 더불어 기호학에도 소쉬르의 랑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방법론에서 벗어나 문학적 파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방법론의 시험장이 된 문학 기호학은 또 다른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제 문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총체를 규명하기 위해 서사 기호학과 정념 기호학으로는 다루지 못하는 부분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구조주의¹⁾는 불연속적 현상과 이산적 대립만이 가지적(intelligible, 可知的)이고 변별적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과 대립이 가지적이고 변별적이기 위해서는 그 출현이 있기까지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담화 기호학에서는 이러한 과정, 즉 연속적 변조와 점차적 긴장이 지배하는 단계²⁾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감각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으로부터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1) 이것은 구조라는 것이 지각(perception, 知覺)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서 지각을 배제하였다.

2) 담화 기호학보다 앞서 발표된 정념 기호학에서는 이것을 의미의 선조건 층위라 하였다. 하지만 담화 기호학에서는 의미의 발생을 층위 이론으로 파악하지 않고 담화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

연속적 변조와 점차적 긴장이 지배하는 단계를 식물에 비유하면, 씨앗의 싹이 트는 조건을 다시 조건지우는 것으로 내부의 흔들림이나 온도 등 추상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 단계의 추상적 요소인 긴장(tension)이나 감(phorie, 感)의 상태에 따라 똑같은 의미의 씨앗을 다르게 피운다고 말할 수 있다.

담화 기호학은 의미를 기존의 기호학처럼 관습적이거나 이미 정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나타나는 살아 있는 동적인 것으로 보고 긴장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렇게 기호학은 항상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 때마다 새로운 탐구 영역을 발견하고 연구의 관심을 이동하여 지평을 확대하였다.

서사 기호학에서 행동은 서사도식에 따르고, 정념 기호학에서 정념은 정념도식에 따른다. 하지만 담화 기호학으로 넘어가면서 정념은 정념도식뿐 아니라 긴장도식에도 따르며, 이 두 도식을 합하여 담화도식이라 한다. 그래서 주요 분석 도구인 긴장도식이 긴장구조 연구에서는 필수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회 동인 문학상을 수상한 「불꽃」(1957)³⁾은 1950년대 전후 문단에 있어서 가장 발랄하고 선이 굵은 작가로 주목받은 행동적 휴머니즘 작가 선우휘의 중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회상과 현실을 오가며 전개되고 있다. 작품 내의 물리적 시간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에서 다루는 시간은 3대에 걸친 방대한 시간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 걸친 가족사를 다룬 것이다. 3·1운동에서 6·25전쟁에 이르는 역사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가족의 고난, 민족의 수난사를 주인공 고 현이

3) 『선우휘 불꽃』, 오늘의 작가 총서 21, 민음사, 2005.

이 작품의 줄거리 요약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고 현의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이며 기독교 신자로서 3·1운동 때 일경이 쏜 총을 맞고 뒷산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는다.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으며, 그의 어머니는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기독교에 귀의하여 아들을 보살핀다. 그는 일본 유학 시 귀국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고, 중국에 파병되었다가 탈영 후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온다.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상적 부조리와 혼란을 경험하고, 6·25가 터지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 연호와 대립한다. 인민재판이 있던 날, 현은 동료 여교사 조 선생의 부친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 연호를 주먹으로 치고 보안서원의 총을 빼앗아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한다. 현의 은신처를 알게 된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를 앞세우고 동굴을 향해 올라간다. 처음에는 현에게 자수하라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그를 살리려고 ‘너는 살아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연호의 총을 맞고 쓰러진다. 현은 연호를 총으로 쏘아 쓰러뜨리는데, 그때 그 자신도 어깨에 연호의 총탄을 맞고 고통을 느끼는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라는 젊은이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또한 역사 인식에 대한 한국인의 체념과 순응주의를 비판하고, 적극적이며 행동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그래서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불꽃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꽃」은 보기 드문 강렬한 좋은 소설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전체적 문맥이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작품⁴⁾을 통하여 긴장구조 이론이 텍스트 분석에 적용되는 방식과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긴장구조

1981년 그레마스가 발표한 논문 「분노에 관하여(De la colère)」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긴장은 그 당시 정념 기호학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1991년 그레마스와 풍타닐이 발표한 『정념의 기호학(*Sémiotique des passions*)』은 의미생성행로 첫 단계인 선조건 층위에 긴장을 위치시켜 감(phorie)과 더불어 감적 긴장성의 공간(*espace de la tensivité phorique*)을 인간 사고나 행동이 있기 이전인 인간 세계의 시초 상태로 설정하는데, 이 공간이 의미 출현에 있어서 최초 조건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선조건 층위란 주체와 대상 사이 차이와 관계가 생겨나기 전 단계로서 일종의 혼돈이며 구분되지 않는 통일체이고 원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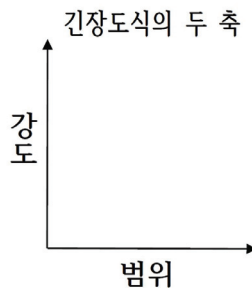
긴장구조가 담화 기호학에서 현존(*présence*)과 관련이 있는데, 현존은 담화 현동태의 최소 특성을 말하며, 지각에서 두 차원인 강도(*intensité*)와 범위(*étendue*)의 결합으로 획득된다. 이 결합은 현존 정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4) 「불꽃」은 역사적 사실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서사성과 행동성을 회복시킨 작품으로, 서사와 정념 기호학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담화 기호학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기호학에서 주체와 대상의 접합은 추상적인 순수한 통사적 관계로 지각 및 세미오시스(sémiosis)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여기서 세미오시스란 표현면과 내용면을 결합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반면에 담화 기호학에서 주체에 대한 대상의 현존은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전제로 하며, 신체의 위치 결정과 뒤이어지는 세미오시스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양태적, 상적(相的), 형상적인 모든 조직화가 형성되기 전에, 기호학적 영역의 첫 분절인 현존에서 이루어지는 변조(modulation) 현상을 발랑스(valence)라 하며 가치 체계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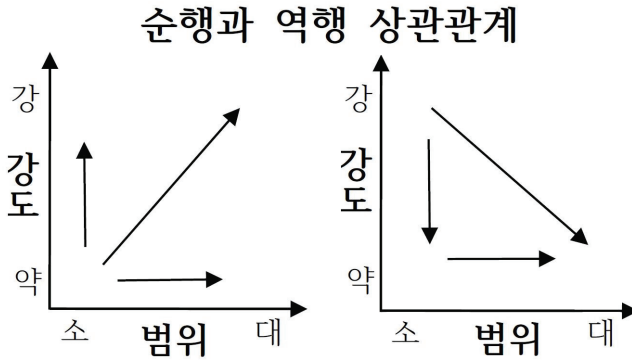
III. 긴장도식

긴장은 강도(intensité)와 범위(étendue)로 분절된다. 강도에 속하는 범주는 힘, 에너지, 정동이며, 범위에 속하는 범주는 수량, 시공간, 인지이다. 두 범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긴장 도식이며, 강도를 세로좌표에, 범위를 가로좌표에 위치시킨다. 강도가 변화하면 범위도 변화하고 역으로 범위가 변화하면 강도도 변화하여, 두 범주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강도와 범위는 점차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두 영역을 맺는 상관관계는 두 축 위에 점들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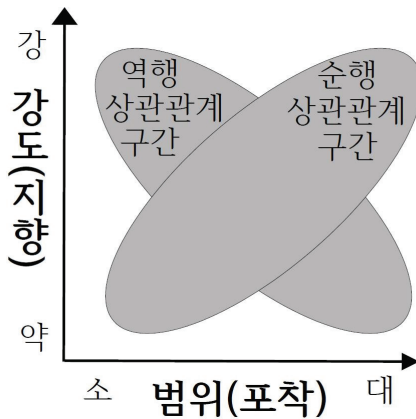
[도표 1]

신체는 강도와 범위 두 영역을 공유하는데, 강도로부터 지향(visée)의 방향성을, 범위로부터 포착(saisie)의 방향성을 정한다. 강도와 범위가 똑같이 상승하면 순행 상관관계(corrélation directe)이며, 역으로 서로 반대로 상승하면 역행 상관관계(corrélation inverse)이다.



[도표 2]

상관관계는 구간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도표 3]

위와 같이 지향과 포착 사이에 순행 혹은 역행 상관관계를 위치시킬 수 있다.⁵⁾ 예를 들면 애착의 감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체의 대상에 대한 감정 강도가 강할수록 소수에게 적용되어 범위는 좁다. 반면에 감정 강도가 약할수록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어 범위는 넓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위 도식에 표현하면 반비례하는 역행 상관관계의 구간에 표현되며, 전자는 구간 윗부분에, 후자는 구간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IV. 강도와 범위

지각적 의식에 비쳐지는 형태는 감각의 구분 이전에 존재하는 운곽, 즉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이분법이 구분되기 이전 통일이다. 곧이어 우리의 지각으로부터 의미작용이 드러나는데,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형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지각은 범위, 곧 기표를 마련해주고, 개념, 정서, 감각, 인상 등 내부 세계의 지각으로부터 강도, 곧 기의가 형성된다.

달리 표현하면 지각 신체는 언어의 두 면을 분리하는데 위치 결정을 하여 표현면(외부 세계)과 내용면(내부 세계) 사이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신체는 동일한 언어활동으로 두 면을 결합시키는데, 감각적인 것(sensible)과 가지적인 것은 언어활동의 두 면을 결합시키는 작용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1. 기본 가설

① 강도가 내수용적인 내부 영역과 관련되며 내용면(기의면)을 이룬다. 범위는 외부 영역과 관련되는 외수용적 표현면(기표면)을 이룬다. 모든 기호는 이 두 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영역 간 상관관계는 긴장성의 세미오시스를 구축하며 현존의 영역을 이룬다. 이 영역은 지각

5)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pp.72~74 참고.

주체의 자기수용이 형성되는 장소이며, 신체는 움직이는 곳 어디에서나 새로 위치를 정하는데 이때마다 내수용적-외수용적-자기수용적 지각을 다시 형성한다.

② 강도는 감각적인 차원에, 마음의 상태 혹은 정서에 해당하고, 범위는 가지적인 차원에, 사물의 상태 혹은 인지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긴장성은 두 차원이 서로 합류하는 상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③ 강도는 지각 주체의 활동인 지향을, 범위는 지각 대상의 변별적 영역인 포착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향은 강하거나 약한 강도를, 포착은 넓거나 좁은 범위를 지닌다.

④ 강도와 범위에는 각각 하위 차원이 있는데, 강도는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속하고, 범위는 셀 수 있는 것에 속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에 속하는 범주는 힘, 에너지, 정동이며, 후자에 속하는 범주는 수량, 시공간, 인지이다.

이러한 가설은 상동관계(homologation)로 표현되어 다음과 같은 대립의 목록이 작성된다.⁶⁾

강도	범위
기의	기표
내용면	표현면
내수용	외수용
감각적인 것	가지적인 것
마음의 상태	사물의 상태
정서	인지
지향	포착

[도표 4]

6) L. Hébert,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pp.77~78
참고.

2. 강도

강도는 발화 주체의 판단에 속한다. 발화는 1차와 2차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차 단계에서 감이 우선 쾌감과 불쾌감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 2차 단계에서 강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도는 가치 체계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예컨대 어떤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맨 처음 감을 잡고 그 다음 가치 판단에 의해 쾌감과 불쾌감으로 양극화된다. 그 사건이 부정적인 것일 때는 불쾌감으로 가치 평가를 한 다음, 약하거나 강한 강도가 부여되는데 약한 강도는 사고로, 강한 강도는 재난으로 평가된다.

「불꽃」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3·1 독립운동에 앞장 선 아들을 목격하는 장면을 보면,

싸전가게에서 이 군중의 선두에 선 키 큰 젊은이를 발견한 흑부리 주인은 “악!” 하고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

“저 녀석이, 저 녀석이.”

하고 외쳤으나, 그 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굴고 있었다. 무거운 텅어리가 머리 위를 짹 짓누르는 것 같았다. “어이쿠!” 주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

일행의 선두에서 만세를 절규하던 젊은이 … 시체는 그의 부친에게 인도되었다. 싸전주인인 젊은이의 부친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아들의 시체를 공동묘지에 묻었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선 불쾌감으로 가치 판단을 한 다음 극도로 긴장하여 강한 강도를 나타낸다. 일행 중에서 아들을 발견하자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는데 입에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며칠 후 자신에게 인도된 죽은

7) 선우휘, 앞의 책, 39~41쪽.

아들을 볼 때, 고도의 긴장감은 체념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이완 상태가 된다.

텍스트에서 주인공은 여러 번 불의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데, 그의 양태 정체성 /의지/의 강도는 최고도에 달하면서 /능력/과 결합하여 순간상(aspect ponctuel)⁸⁾에 의해 즉각적인 행동이 표출된다.

현의 입에서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살인이다!”

… 순간적으로 내민 자기의 주먹에 쓰러지던 연호. 앞에 버티고 섰던 보안서원의 소총을 낚아채고 군중의 틈을 빠져나가던 기억. (그 때의 충동.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마음의 충동은 그 무엇이이었을까)⁹⁾

주체(현)는 공산주의자가 된 친구 연호를 때리고자 하는 강도 높은 /의지/와 그를 주먹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주먹으로 친다. 주체의 행위는 발화 작용으로 일종의 분노의 폭발이다. 자기 신체의 주체는 대상(연호)을 구타함으로써 자신이 공산주의에 반대함을 폭로하고 있다. 즉 주체가 애정을 느끼고 있는 조 선생 아버지를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주체의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행위는 연호에게 비언어적 기호, 가시적 지각 작용으로 표현되어 공산주의에 대립함을 나타내고 있다.

주체는 공산주의자가 무고한 사람을 때리는 아픔을 스스로의 아픔으로 느끼며, 무고한 사람과 감각적인 강도와 범위를 공유하고 있다.

8) 상(aspect)은 동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사건의 내부적 상태를 가리키는데, 동사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일 때는 기동상, 순간적일 때는 순간상, 지속적일 때는 지속상, 끝난 것일 때는 종결상이라 한다.

9) 선우휘, 앞의 책, 90쪽.

묵인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그대로 늘이고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줄, 그리고 아픔. 희생자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지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지는 아픔이었다. 어찌하여? 나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중, 거기에는 아무런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꼈다.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감각적인 강도와 범위(양)의 공유에 바탕을 두는 감정이입에 의해서이다.

3. 범위

강도는 별로 관계가 없고, 대상의 가치(혹은 중요성), 수,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정념이 있다. 예로 자존심(*fierité*)과 민감성(*susceptibilit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반응의 강도가 아니라 범위이며 원인의 중요성, 수를 말한다. 대개 자존심은 중요한 경우에만 내세워지는 반면, 민감성은 모든 사소한 경우에 다 나타나고, 그래서 범위에 있어서 전자는 좁고, 후자는 넓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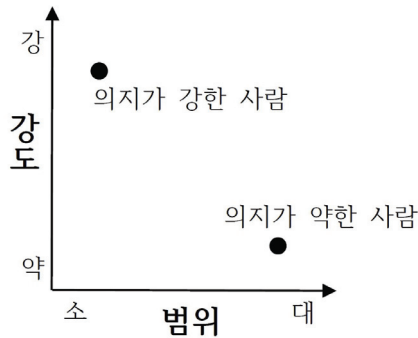
분노처럼 격한 감정의 표출이 있을 후, 정신을 모은다(가다듬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이 표출은 정신을 분산시켜 많은 수의 구성요소로 분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텍스트에서 주체는 공산주의자가 죄 없는 사람을 곤봉으로 때리자 가슴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난다. 이 경우 분노는 /의지/, /의무/, /지식/, /능력/의 양태를 선택하고, 분노의 표출 후에는 분산시킨 정신을 모은다고 담화기호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

10) 선우휘, 앞의 책, 90쪽.

4. 강도와 범위의 결합

아직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형상에서 주체는 최소한 무엇을 지각하는가? 우선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발산되고 자신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느낀다. 이와 동시에 수량화 할 수 있는 형상적 전개로 측정가능한 시공적 범위, 대상에 의해 점거된 범위를 지각한다. 이것은 어떤 것의 현존을 주장하거나 가정하는 주체가 최소한으로 차지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가치 체계와 마찬가지로 양태 가치는 지각의 발랑스, 즉 강도와 범위의 조절 하에서만 나타난다. 일례로 /의지/의 가치는 강도와 범위의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어디에 집중시킬지 모르고, 많은 대상에 대해 매번 약한 결심을 하여 의지를 분산시킨다. 따라서 강도는 낮고 범위는 넓은 반면에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 대상에 의지의 강도를 집중시키는데, 그래서 강도는 높고 범위는 낮다. 이것을 긴장 도식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이러한 것을 「불꽃」에 적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는 등장인물이 삶에 대처하는 태도의 변화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 현과 고

노인은 모두 후반부에 가서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이고 입체적인 인물 유형이다.

- 일군에서의 탈주 - 또다시 연안에서의 도주. 도피의 연속.

어느 때 정면으로 싸워본 일이 있었던가. 단 한 번. 그것은 극히 어린 시절의 일. 할아버지의 흑을 두고 얼굴에 흘린 피와 갈기갈기 찢긴 옷. 뜻밖에도 할아버지는 노하셨지. 모든 거북한 일에 등을 돌리는 습성이 내 가슴에 깃들인 것은 어느 때부터였는가. 그리고 겹질 속에 몸을 오므린 30년의 결산은 결국 도망을 놓았다는 것이다.¹¹⁾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주체인 현이 할아버지의 흑을 조롱하던 아이들과 싸우고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칭찬 대신에 오히려 무섭게 야단을 치셨다. 그 때부터 주체의 행동은 더욱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저항정신 대신에 할아버지의 소극적인 숙명론적 태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주체는 일제 말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좌우익의 대립과 인민재판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당면한다. 이 때부터 그는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할아버지의 생활 방식 대신에 능동적이고 투쟁적인 아버지의 생활 방식으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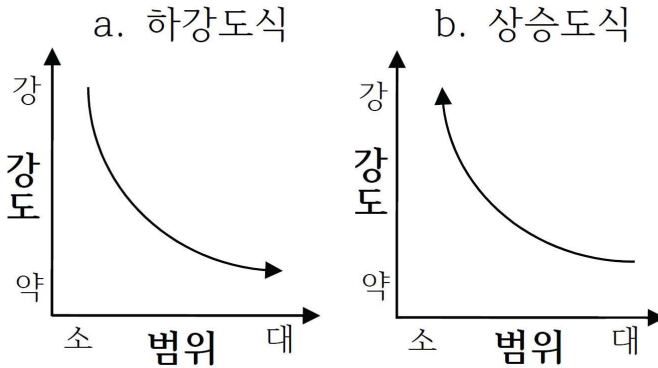
살아서 먼저 청부업자들을 거부하자. 떠들어대야 인생은 더욱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알려주자. 꺼리고 비웃는 데 그치지 말고 정면으로 알몸을 던져 거부하자.¹²⁾

이렇게 주체는 적극적이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청부업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개척해야겠다는 불꽃이 다시 일기 시작한 것

11) 선우휘, 앞의 책, 91쪽.

12) 선우휘, 앞의 책, 100쪽.

이다. 한 마디로 그는 삶에 대해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생활방식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생활방식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강렬한 의지를 지닌 태도로 변화한다. 이것은 긴장도식에 의하면 처음에는 낮은 강도와 넓은 범위였다가 나중에는 높은 강도와 좁은 범위로 변화하여 다음 b번 도식과 같이 역행 상관관계의 상승 도식이 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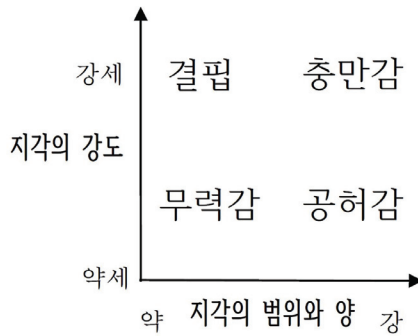
[도표 6]

한편 현의 할아버지도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보수적이고 폐쇄적 인물이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능동적 인물로 변한다. 연호가 노인을 인물로 하여 동굴로 추적해 올 때, 노인은 팔십 평생에 처음으로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자기 의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의식 변화를 긴장 도식에 표현하면 위 b번 도식과 같이 역행 상관관계의 상승 도식이 된다.

두 차원 강도와 범위의 강하거나 약한 결합으로 현존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변조를 규정할 수 있다. 변조는 주체가 현존의 여러 정도를 느끼는 방식을 나타내며, 네 가지 변조는 결핍, 충만감, 무력감, 공허감이

13) *Sémiotique du discours*, Op. cit., p.111.

라 할 수 있다. 이를 긴장도식에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¹⁴⁾



[도표 7]

위 도식에서 특히 ‘결핍’을 살펴보면, 이접이 어떤 감정으로 변형될 때만 나타나는데, 주체가 대상을 목표로 하므로 강도는 높지만, 대상을 포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범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도식에 표현된 대로 ‘결핍’은 높은 강도와 낮은 범위가 결합하는 위치에 놓인다.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는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 했다. 그것은 다음 차원예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섬광, 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율, 통절히 느껴지는 해방감. 현은 끝없이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¹⁵⁾

위의 텍스트에서 불꽃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중도적인 삶의 태도에서

14) J. Fontanille, *Sémiotique et littérature*, PUF, 1999, p.78 참고.

15) 선우휘, 앞의 책, 100쪽.

적극적인 현실 참여에로 향하는 의지의 분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각을 내며 부서지는 껍질과 무수히 튀는 불꽃은 바로 현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인 현은 폐쇄적 인간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개혁을 시도하며 새로운 비약을 다짐하는 동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그래서 주체의 정서 상태의 강도(힘, 의욕)는 매우 높고 범위(무수한 불꽃)도 극대화되어 위 도식에서 ‘충만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V. 긴장성과 담화 코드

1. 긴장성

정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며 정념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풍타닐은 모든 텍스트에 정념 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통사 형태와 도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념의 의미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생산하는 통사 형태와 도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형태는 구별이 가능한 코드에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코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약속에 의해 대체작용으로 정보를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적으로 관찰되고 추출된 코드는 리듬이나 긴장의 변화, 양태의 조합, 형상적 모티브이며, 수신자에 의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백히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긴장을 느끼는 용기로 간주되는 신체는 한 영역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긴장과 조절의 형상, 그리고 의미적 상관요소로 긴장성을 갖는 형상과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긴장성을 생성하는 것은 강도와 범위 간 상관관계이며, 두 의미 차원인 강도와 범위가 가변의 변동 장치처럼 작동하면서 각기 관여되는 규모를 정념의 발현을 산출할 수 있는 긴장의 규모로 전환시킨다. 텍스트에서 어떤 정념의 발현이 포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발현이 체계를 형성하는 코드로 작동하기 때문인데, 풍타닐은 이러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a. 신체적 표출을 일으키는 긴장성은 신체 코드이고,
- b. 빈번한 동요를 일으키는 기질적 범주에 적용되는 긴장성은 기질 코드이며,
- c. 양태 가치로 변형되어 구성하는 양태 코드는 양태에 적용된 긴장성이다.
- d. 행위소의 관점에서 지향되는 관점 코드는 사행의 행위소에 적용된 긴장성에서 나타난다.
- e. 사행의 상적 형태에 적용된 긴장성은 상과 리듬 코드이다.
- f. 여러 장면에서 특별한 정서적 부하를 투입하는 형상 코드는 형상적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긴장성으로 분류된다.¹⁶⁾

활동 중인 담화의 관점에서 정념은 감각적인 것(강도와 지향)과 가지적인 것(범위와 포착)을 결합시킨다. 담화의 정념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는 이 두 유형에 동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감각적인 것으로는 신체 코드와 형상 코드가 해당하고, 가지적인 것으로는 양태, 관점, 리듬 코드가 속한다.¹⁷⁾

2. 담화 코드

현은 언뜻 할아버지의 눈에 빛나는 것을 보았다. ‘주름지고 늘어진 눈
시울 밑에 가득히 핀 눈물’, 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
었다.¹⁸⁾

16)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p.636,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17)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Op. cit.*, p.226 참고.

주체(현)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대해 항상 험담하시는 것만을 보았으나, 3·1절 기념식에서 할아버지 눈에 끈 눈물을 보고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신체 코드>이며, 이 같은 신체적 움직임은 상대방에게 느낌이나 감정을 알리는 방식이다.

현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 교원에게 어떤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에 대해, 회의 때 현이 일어나 항의하자 ‘교장은 낯색이 변했다’(74쪽) 이것은 교장의 강도 높은 감정 상태를 알려 주며 동시에 항의에 대한 교장의 불쾌감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 즉 교장은 낯색이 변하는 <신체 코드>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조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저 저는 그만둔다는 인사를 드리러 온 것 뿐입니다.”

현은 곧 발길을 돌려 교실을 나온 탓으로 조 선생의 눈에 서리기 시작한 뾰얀 안개 같은 것이 방울지면서 마루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¹⁹⁾

현이 학교에 사표를 내자 동료인 조 선생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진 다. 이 경우에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발화 장소인 신체이며, 언어 고백 대신에 얼굴 위에 신체 고백이 나타난다. 이 같은 <신체 코드>, 즉 제스처, 표정, 피부색, 전율 등 신체 발현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코드이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은 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경우의 긴장성은 <기질 코드>라 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현이 강의 시간에 일본 교수의 말에 대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반박하자, 교수는 ‘쓴 웃음을 짓는다.’(58쪽) 여기서 일본 교수는 쓴 웃음을 짓는 <신체 코드>로 불쾌감의 <기질 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18) 선우휘, 앞의 책, 70쪽.

19) 선우휘, 앞의 책, 79쪽.

현은 조 선생에 대해서 애정을 느낀다.

나는 조 선생이 가까이 있으면 어느 때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저도 모르게 끌리는 것을 느낀다.²⁰⁾

위의 인용문에서 주체는 대상 조 선생에게 인력으로 연결되며, 이때에 긴장성은 쾌감을 유발하는 <기질 코드>와 동시에 /~이기를 원함/(조 선생과 연접이기를 원함)의 <양태 코드>를 나타낸다.

문득 가슴에 치솟는 한 가지 불안이 있었다. 조 선생과 헤어져서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느낀 방앗간 밑에서 자기를 응시하던 한 젊은이의 시선.²¹⁾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형상 코드>는 주체가 겪는 전형적 장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굴로 도피했던 현이 마을로 내려와 조 선생을 만나고 헤어진 후 마을 어귀에서 응시하던 한 젊은이의 시선은 주체가 겪는 <형상 코드>이다. 이 코드가 주체에게 불러일으킨 불안감은 적중하여, 주체의 적인 연호가 주체의 할아버지를 앞세워 동굴로 올라오고 할아버지는 결국 연호의 총에 맞아 돌아가신다. 주체는 연호를 쏘아 쓰러뜨리고, 자신도 연호의 총을 맞아 어깨를 다친다.

현은 잠에서 깨어났다. 쿵! 포 소리가 들렸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그날은 하루 종일 포성이 들리더니 부상자를 실은 후송열차가 숨 가쁘게 P역을 지나 남하했다. (80쪽)

쿵 하고 남쪽 멀리서 은은한 포 소리가 들려왔다. (93쪽)

쿵 하고 또 멀리서 포 소리가 들려왔다. (96쪽)

또 한 번 쿵 하는 포 소리 (97쪽)

20) 선우휘, 앞의 책, 75쪽.

21) 선우휘, 앞의 책, 79쪽.

위에 표현되어 있는 <상과 리듬 코드>는 직접적으로 지각가능한 감성적 형태이다. 텍스트에 표현된 ‘쿵’ 하는 포 소리의 반복적인 삼입으로 삶의 절망과 전쟁의 공포라는 내재적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현은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쿵 하고 들려오는 포 소리보다 가까운 하나의 부르짖음. “보아, 저 소리,
벌써 가까워 오는 그리운 저 목소리.”
...
영겁의 정적은 깨뜨려지고 거기 새로운 생명이 날개를 치며 퍼득이기 시작했다.²²⁾

위의 텍스트에서 이루어진 변형은 여러 관련된 행위소 가운데 어떤 행위소의 관점인가에 따라서 상실이 될 수도 있으며 획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상실이나 획득은 주체 행위소에게 분노나 절망감 혹은 향수나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행위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을 <관점 코드>라 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관점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주체인 현은 ‘쿵 하고 들려오는 포 소리보다 가까운 하나의 부르짖음’을 그림다고 표현함으로써, 주체 행위소의 관점으로 볼 때 대포 소리가 그리운 향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이 경우 연호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감이나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다.

‘가까워오는 그리운 저 목소리’는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국군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의 진행을 함축적으로 암시해 주며 텍스트를 매듭짓고 있다.

22) 선우휘, 앞의 책, 101쪽.

VI. 맺음말

지금까지 담화 기호학의 긴장구조를 선우희의 「불꽃」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긴장구조를 설명하고, 긴장도식, 강도와 범위, 긴장성과 담화 코드를 알아보았으며, 이론의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불꽃」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담화 기호학은 텍스트 내에서 긴장구조의 형태를 띠는 가치 체계를 찾고자 하며, 텍스트의 긴장구조 변화, 곧 강도와 범위의 변화를 통해 의미의 발현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체가 현존을 정념으로 체험하기 위해 현존은 주체의 지각을 강하거나 약하게 느끼도록 하는 강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넓거나 좁게 느끼는 범위가 작용해야 한다. 그래서 강도의 정도와 범위의 정도의 결합은 현존의 정도를 정한다고 할 수 있다.

서사 기호학에서는 서사도식, 정념 기호학에서는 정념도식, 담화 기호학에서는 긴장도식이 주요 분석 도구이다. 서사도식은 행위소의 자격 부여 시에 긴장을 상승으로 변화시키고, 수행 시에 확대로, 검증 시에 하강으로 변화시킨다. 정념도식에서는 정념 시퀀스의 전개가 긴장의 변화를 따르는데,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긴장을 긴장도식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긴장도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큰 도식이며, 텍스트의 내용을 세밀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불꽃」은 등장인물이 삶에 대처하는 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인공 현과 그의 할아버지는 삶에 대해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에서 나중에는 적극적이고 강렬한 의지를 지닌 삶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긴장도식에 표현하면 역행 상관관계의 상승 도식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처럼 긴장도식은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를 나타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긴장구조 이론은 텍스트 내 비어휘적 발현을 긴장성과 담화 코드

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의 발현이 포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발현이 체계를 형성하는 코드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풍타닐은 이런 코드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런 코드의 예를 텍스트에서 찾아보고 비어휘적 발현을 긴장성과 담화 코드로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기호학은 이론적 가설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담화 기호학의 중요한 이론인 <긴장 구조>를 선우휘의 「불꽃」 일부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데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 김형효, 『메를로 뵈띠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박인철, 『파리학과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98.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4.
- 한국기호학회, 『정념의 세계와 기호학』, 가을학술대회, 2010, 11, 6.
- _____, 『신체 인문학의 새로운 지형 : 몸, 감각, 미디어』, 봄철국제학술대회, 2013, 4. 28.
- _____, 『소쉬르 사상의 인문학적 유산』, 가을학술대회, 2013, 11. 2.
-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기호학 연구』, 제28집, 한국기호학회, 2010, 283~319쪽.
- _____, 「담화 기호학 연구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37집, 한국기호학회, 2013, 303~336쪽.
- _____, 『정념 기호학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에 대한 담화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연구』, 제48집, 한국기호학회, 2016, 225~248쪽.
- Arrivé, M.,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Klincksieck, 1987. (최용호 옮김,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인간사랑, 1992).
- Benveniste, 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1966.
-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1974.
- Fontanille, J., “Le désespoir”, in *Actes Sémiotiques*, II, 16, 1980.
- _____, *Les espaces subjectif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l’observateur*, Hachette, 1989.
- _____, “Le schéma des passions”, in *Protée*, Québec, vol. 21, 1993.
- _____, *Sémiotique du visible*, P.U.F., 1995.
- _____, *Sémiotique et littérature*, 1998. (김치수 · 장인봉 옮김,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9.
- _____, *Soma et Séma, figures du corps*, Maisonneuve & Larose.

- _____, “Sémiotique des passions”, in Anne Hénault, *Questions de sémiotique*, PUF, 2002.
- _____, *Pratiques sémiotiques*, PUF, 2008.
- _____, *Corps et sens*, PUF, 2011.
- Fontanille, J., & Zilberberg, C.,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Géninasca,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HF, 1999.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_____, *Du sens II*, Paris, Seuil, 1983. (김성도 옮김,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 _____, *De l'imperfection*, Panlac, 1987.
- Greimas, A.-J. &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Greimas, A. -J. & Fontanille, J.,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Paris, Seuil, 1991.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옮김, 『정념의 기호학』, 강, 2014)
- Hébert, L., *Dispositifs pour l'analyse des textes et des images*, PULIM, 2009.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aris : P.U.F., 1979. (홍정표 옮김, 『기호학으로의 초대』, 어문학사, 1997)
- _____, *Narratologie - Sémiotique générale*, Paris : P.U.F., 1983. (홍정표 옮김,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Histoire de la sémiotique*, coll. Que sais-je?, Paris : P.U.F., 1992. (박인철 옮김, 『기호학사』, 한길사, 2000)
- Hjelmslev, L.,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Editions de Minuit, 1971.
- Merleau-Ponty, M.,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익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Tensive structure of discourse semiotics:
mainly on Sunwoo Hwi's *Flames*

Hong, Jeong-Pyo

The objective of this manuscript is examining the tensive structure, the essential and important tool of analysis in discourse semiotics(which was established by Jacques Fontanille after passion semiotics), focusing on *Flames*(1957) by Sunwoo Hwi, who won the 2nd Dong-In literary award.

First of all I have explained the tensive structure, and then the tensive scheme, intensity and range, tension and discourse code. Then I have applied these to *Flames* and analysed, to prove the potential and validity of the theory.

Discourse semiotics intend to find the value system which has a form of tensive structure inside the text, and understand the manifestation of meaning from the change of the tensive structure, in other words, the change of intensity and range. If the body is to experience the existence as passion, the existence needs intensity to make the subject feel its perception stronger or weaker, and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range of feeling, wide or narrow. Thus we can say the combination of degree of intensity and range defines the degree of existence.

Change of characters' attitude of reaction on life is manifested prominently in *Flames*. The protagonist Hyun and his grandfather were initially defensive and passive on life, but their manner later change into more active and strong-willed life. I have found if this is expressed on tensive scheme it will be ascending scheme of retrograde correlation, and proven that tensive scheme can be applied for describing the transition of characters' consciousness like this.

Also, the theory of tensive structure can explain the non-verbal manifestation inside text with tension and discourse code. If a certain manifestation of semantics can be seized inside the text, it is because that

manifestation functions as the code for formation of a system. Fontanille categorized these codes into six kinds, found examples of them inside the text, and proved that non-verbal manifestation can be explained with tension and discourse code.

Given that the objective of semiotics is to prove the potential and validity of theoretical hypothesis by applying it to the text, this manuscript has its worth on proving the potential and validity of tensive structure, an important idea of discourse semiotics, by applying and analyzing it to a part of Sunwoo Hwi's *Flames*.

Key words : intensity, tension, tensive structure, tensive scheme, orientation, range, ascending scheme, direct correlation, retrograde correlation, descending scheme

투고일 : 2017. 08. 20. / 심사일 : 2017. 09. 10. / 게재확정일 : 2017. 09. 17.